

Butadiene, 공급확대 1000달러 붕괴

FOB Korea 980-990달러로 20달러 하락 ... 정기보수 마무리 국면

Butadiene 가격은 7월9일 FOB Korea 톤당 980-990달러로 20달러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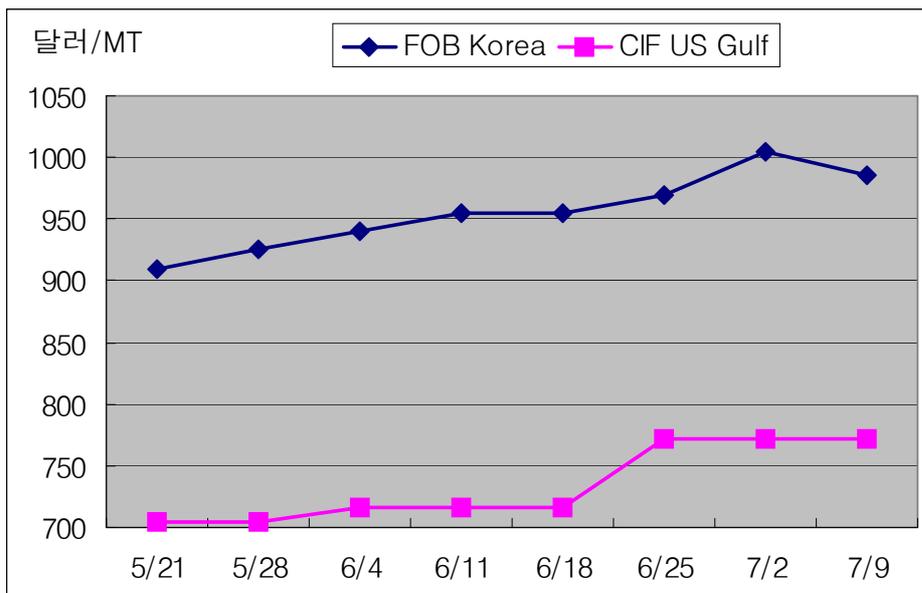
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2-3개월 동안의 급격한 가격상승 행진으로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지나치게 오른데 대한 반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한국 및 일본의 에틸렌 크래커 정기보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8월 도착 예정이었던 유럽산 부타디엔이 9월 중순 이후 도착으로 지연됨에 따라 공급부족이 단숨에 해결되기 어렵고, 나프타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고 있어 수급불안은 여전한 상태이다.

타이완 수요기업이 중동산 8월 초순 거래물량 1000톤을 CFR 1010달러에 구매했고, 중국의 Baling 또한 8월 초순 거래되는 일본산 1000톤을 CFR 1070달러에 구매했다.

Butadi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부타디엔 가격은 7월9일 CIF US Gulf 파운드당 34.00-36.00센트로 톤당 평균 772달러로 보합세를 형성했으며, 7월 계약가격은 32.00센트를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4/07/15>